

God made us

(Psalm 139:14)

“I will give thanks to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Wonderful are Your works, And my soul knows it very well.”

In today's Bible verse David emphasizes that we should praise the Lord for how “fearfully and wonderfully” He has made us. God is the Creator of all things. But how has He made us? Often times we speak of being His children, but we don't understand or appreciate how we are made. Let's think about it.

First of all, we are made near to God by the blood of Christ. Ephesians 2:13 tells us,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formerly were far off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Because of Christ's blood we are close to God. We must remember that it is Jesus' blood that makes us near to God. Without Christ unbelievers are without God. They are faraway from Him. Our sinful nature makes us really bad, “And although you were formerly alienated and hostile in mind, engaged in evil deeds, yet He has now reconciled you in His fleshly body through death, in order to present you before Him holy and blameless and beyond reproach” (Col. 1:21&22). Isn't that wonderful? We are actually enemies of God because of our evil actions, but through Christ's death we are made right. He makes us holy and clean, so that we can glorify and praise Him. God is righteous. Only those who are holy, blameless, and beyond reproach can worship Him. The blood of Jesus is so powerful that it enables us to worship God. What's even more powerful is that Christ's life saves us, “For if while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Rm. 5:10). In other words, God has made us by the blood of Christ so that we can be near to Him eternally.

In Christ, we not only become close to God, but we become heirs according to the hope of eternal life (Tit. 3:7). Do you believe it? There

depress you when you have such wonderful truth?

God has also made us partakers of Christ. Listen to the words of Hebrews 3:14, “For we have become partakers of Christ, if we hold fast the beginning of our assurance firm until the end.” Amen!

How did God make you?

*Through the blood of Christ, He has made you a heir,
divine partaker, king, and priest.*

What a promotion

*from the lowest position of sinner. Hold on steadfastly to
your faith from its beginning*

*to its consummation and you will be the most honorable
noble. There is no depression and death as a king and
priest. How can*

*you explain this amazing transformation in earthly
terms?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Amen!*

are a lot times when we try to be good Christians, good human beings, but our efforts are in vain. We are heirs of God because of His grace alone. Paul tells us, “and if children, heirs also, heirs of God and fellow 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uffer with Him so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with Him” (Rm. 8:17). As God's heirs we receive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l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1 Pet. 1:4). Isn't that great? God made us like that. If you really understand, isn't your heart burning with joy and praise for our Lord? Aren't you excited? What in this world could

This wonderful, precious promise God has given to us. Christ's divine power has granted to us everything pertaining to life and godliness. Because of it we can join Christ's divine nature, “For by these He has granted to us His precious and magnificent promises, so that by them you may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by lust” (2 Pet. 1:4). God has made us divine. Who can fully understand how wonderful and great a blessing we have in Christ? Some day it is going to be made clear to us when we enter the gates of heaven.

Christ's divine nature within us

makes us eternal kings and priests. Revelation 1:5-6 announces, “and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of the dead, and the ruler of the kings of the earth. To Him who loves us and releas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and He has made us to be a kingdom,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to Him be the glory and the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We shall minister to God forever as kings and priests. “Blessed and holy is the one who has a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over these the second death has no power, but they will be priests of God and of Christ and will reign with Him for a thousand years” (Rv. 20:6). Jesus Christ has positioned us in the present as a kingdom and priests before God, and gives us a promise of reigning on the earth in the future, “You have made them to be a kingdom and priests to our God; and they will reign upon the earth” (Rv. 5:10).

How did God make you? Through the blood of Christ, He has made you a heir, divine partaker, king, and priest. What a promotion from the lowest position of sinner. Hold on steadfastly to your faith from its beginning to its consummation and you will be the most honorable noble. There is no depression and death as a king and priest. How can you explain this amazing transformation in earthly terms?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Amen! As you entered into His house on this warm summer Sunday to worship, I pray His Word has touched your heart. Hold on to your faith until the end. God has made you wonderfully. 

주께서 나를 지으심

(시 139: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김 성 관 목사

죄악된 인생을 새롭게 지으시는 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를 “신묘막측”(fearfully and wonderfully)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자녀 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지으심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도록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자신을 정말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사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라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유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롭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골 1:21-22).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사실상 하나님의 원수이었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이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매우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10).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하시어 자신과 영원히 가까워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새롭게 지으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때 세상의 그 누가 여러분을 낙담케 하였습니까?

신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으심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새롭게 지으심

우리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를 영원한 왕들과 제사장들로 새롭게 지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6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계 20: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세우시고 미래에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다”(계 5:10).

영원히 불장아아 할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새롭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자신의 후사로,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얼마나 높아진 것입니까? 그러므로 거듭나서 끝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붙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에게는 낙심과 죽음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로 어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이 무더운 여름날, 주일, 예배를 영전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날까지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새롭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자신의 후사로,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고 왕과 제사
장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얼마나 높아진 것입니까?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붙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에게는 낙심과 죽음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변
화를 어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의 후사가 되었습니까(딤후 3:7).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선한 그리스도인일, 또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곧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으로 불타올를 것입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진리가 있을

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놀랍고 귀중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적합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벧후 1:4). 하나님은 우리를 신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그 누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먼 훗날 우리가 천국의 문에 들어설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분명해 질 것입니다.

사마르칸트에는 '피루자'가 있습니다. 피루자는 19살의 자매로 1년 전 단기탈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했고 6개월 전 단기팀의 소개로 자하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단기팀은 '이 자매가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피루자를 만났습니다. 과연 피루자는 단지 목만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까. 같이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료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피루자는 통역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알고 있는, 완고한 무슬림인 동네 어른들에게 피루자는 통역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단지 말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루자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피루자는 이제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동역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돌아왔고 피루자는 그 곳에 남아 있습니다. 마을에서 얼마간의 굶지 않은 눈초리를 받아야 할 것만이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는 외로움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사마르칸트의 희망

2011년 여름 우즈베크 단기선교

Hope of Samarkant



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르칸트에는 '콜라'가 있습니다. 17살의 형제인 콜라는 이번에 처음 우리를 만났습니다. 단기팀이 콜라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자연스레 대접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처음 콜라는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낮 시간에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만 콜라와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녁에는 콜라가 사영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

에게 사영리를 읽어주고 있었습니
다. 그 다음 날 저녁 콜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할 때 콜라는 교사
처럼 같이 참여했습니다. 인형
극을 하고 간식을 나누어 주
고... 콜라는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헤이절 즈음 콜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
는 기적같은 이야기들이 아직
다 믿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을 믿고자 하고, 믿습니다. 교회
에 꼭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형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돌아오고 콜라는 그
곳에 남아 있습니다. 전혀 생소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친지들의 눈치, 쉽게 믿지지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
들이 콜라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콜라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왜
냐하면 이 형제는 사마르칸트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르칸트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많은 복음의 희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무
슬림의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 희망
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사용되기를 기
도합니다.

(우즈베크 단기선교팀)

중등2부 전도 전략

중등2부의 전도전략은 우선 기본적으로 장기결석자들을 관리하여 이른바 '잃은 양 찾기'에 그 중점을 두었다. 작년 말부터 중등2부의 교육적 체제구조에 변화를 꾀하면서 장기결석자들을 위한 별도 관리를 위한 장치를 고안했다. 이는 장기결석자들을 따로 모아 특정 교사들이 관리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대학부에서도 시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기존에는 장기결석생들과 출석생들을 격당 비율로 각반에 배정하여 각 반 교사들이 그 반의 장기결석자들을 관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장기결석자들을 특수 3-4개 반에 집중시켜 장기결석자를 관리한 전담하는 교사 3-4명이 담당하도록 했으며 이 반들은 전도과와 심방과의 합동으로 아래에서 운영이 된다. 실제로 이 반을 관리하는 분들은 전도과장과 심방과장을 비롯하여 아이들을 특별히 심방하며 중보기도를 원하는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결석자들과 교사들은 일반 교사들처럼 주일학교 공과공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결석자들을 심방하고 기도하며 관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중등 2부에서는 이와 같은 장기결석자 관리를 주축으로 하여 외부 전도 활동 또한 전개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아이들에게 전도를 독려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올해 두 차례 시행되는 전도잔치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5월 27일에 한 차례 시행된 전도잔치의 경우 몇 주전부터 이종철 목사의 지도로 확실히 전도를 위한 전도특공대를 결성하여 토요일 오후에 기도모임을 갖고 확실히 전도 활동을 펼쳤으며, 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전도 특강 시간도 가졌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평가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전도 활동이나 프로그램보다도 그 일을 위한 중보기도의 힘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10월 21일에 있을 하반기 전도잔치에서도 5월에 있었던 사례에 비추어 중보기도에 가장 큰 중점을 두면서 그에 따르는 전도활동들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20일에는 중등부가 매년 연합으로 여는 '시와 찬양의 밤'이 있는데 이를 전도잔치주일과 연계하여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경 (전도사, 중등2부 부지도)

중등2부가 2001년도부터 실행하는 개편된 체제에서 특이한 사람은 바로 특별활동반이다. 지금까지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던 제도로, 특별활동반들을 기존 공과반과 아예 통합을 시켜 일반 공과반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획은 단순히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회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활동하는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도가 목표다. 물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아직 미흡하고 문제점도 많고 그 진행도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이미 시작부터 예상한 것이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어 특별활동을 통해 신앙적 성장을 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추가로 중등2부 전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여름수련회이다. 중등2부는 여름수련회를 외부에 있는 장애인 시설로 출어 나가 1박을 하면서 봉사하고 다음날 기도원에 집결하여 부흥회를 갖는다. 최근 중등교육과정에서 봉사점수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봉사자들도 이러한 장애인 봉사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장애인 봉사 여름수련회는 그와 같은 봉사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실제로 이번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여름 수련회에는 신입생만 18명에 달했다. 동기부여는 봉사점수라는 조건을 통해 주어지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등2부 여름수련회는 전도적인 기회가 큰 이런 종류의 수련회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전도한 아이들이 다음에 특별하고 관리하는 문제이다. 전도잔치나 수련회와 같은 때에 많은 수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여야만 전체적인 전도가 완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전도 전략과 함께 언제나 필수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매주 살아 있는 성경공부와 이를 위한 교과교육일 것이다.

이미용 농어촌 현장에서

유재준 (전사, 17교구)

새벽 6시 건설현장의 인부들처럼 미용도구가 든 가방을 메고 동문 경비실 앞에 모였다.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령충만과 건강을 주시어 손으로는 봉사를, 입술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농어촌 전도현장을 향했다.

미리 와서 기다리시는 마을분들이 있어 허겁지겁 가방을 입고 도구들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루 일정을 시작하였다. 한낮의 더위에 온몸은 땀에 젖고 팔과 다리 그리고 얼굴에는 머리카락이 뒤범벅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찾아온 영혼이 참으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 해 손질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던 중 갈말마니를 만나 말씀에 전한 기회를 가졌다. "할머니,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비롯하여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 속으로 많은 죄를 짓지요." 그 말에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다. 한참 복음을 설명한 후 할머니 손을 잡고 열명기도와 회개기도를 드렸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만난 그 시간이 귀하고 귀했다.

그 다음날 다음 사역지를 향해 이동하였다. 더위와 불편한 자라리 때문에 지친 몸으로 아침 8시부터 봉사를 시작하니 손은 움직이지 않아서 힘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지 깨우쳐 주었다. 그 깨우침에 힘을 얻어 함께 한 동역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계속되는 농어촌 미용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

아름다운 주님의 산지가 되길

김 정 윤 (대학부 4학년)



7월 17일부터 3박4일 동안 강원도 정선, 외진 곳에서 목사님 내외가 목회활동을 하시는 용산교회로 농활을 갔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궁금하였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우리 팀원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었다. 또한 여러 이단이 들어와 있다는 전도사님 말씀에 그곳에 가서 사역을 잘 끝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다.

하지만 우리 용산팀 지체들은 기도하는 맘으로 하나하나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었다. 처음엔 사역을 해나가기에 인원도 부족하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채워주셨다.

짐을 풀고 도착예배를 잠깐 드린 후 우리 4일 동안 할 일을 점검했다. 우선 교회의 구석구석 낡은 곳을 손질하기로 하고 도배와 페인트칠을 시작했다. 도배와

페인트칠이 우리에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쪽에선 페인트칠을 하고 다른 한쪽에선 도배지에다 풀칠을 하여 벽과 천장에 붙이고, 또 다른 한쪽에선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새벽 큐티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함과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둘째날, 우리 통일교와 여호와 증인이 많다는 용산 마을로 전도를 나갔다.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손엔 샌드위치와 음료를, 다른 한 손엔 전도에 사용할 글없는 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섰다.

통일교를 믿는 분을 만나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분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드리며 병든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우리 용산팀은 4일 동안 교회보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사역 중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런 어려움과 우리의 약한 모습을 통하여 서로 더 사랑하고 설길 수 있었다. 또한 전도를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다시금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난 그곳을 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되돌아 보며 나 자신도 그곳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중보자의 위치에 서야겠다고 다짐한다.

목사님 내외분과 서너 명의 교인들이 계시는 용산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축복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산지가 되길 바란다.

만평 글·그림 : 김 범 현

숨은그림찾기

찾을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중성, 은유, 절제



충천교회

앗, 아직 못 찾은 분이 없으시나요?
그 분에게 화평과 말 한 마디를 건네주세요,
그럼 그 분은 벌써 숨은그림 중의 하나를 찾은 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
은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6:22-23)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 해 민 (대학부 1학년)

우리가 사역을 다녀 온 곳은 강원도 인제시에 위치한 부령교회였다. 우리는 어린

이 성경학교와 군 전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 나는 사역을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에 참석할 수 있었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나는 군 전도도 좋아했지만,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더욱 큰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최대 인원을 50여 명으로 잡았다. 사역 첫



째날, '방학을 안 했으니까, 많이 외와야 열 몇 명 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이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고 무려 50여명의 어린이들을 교회로 보내셨다. 둘째날은 공휴일인 제천절이었다. 전날보다 더 많은 60여 명의 아이들이 친구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왔다. 쉬는 날이라 친구들과 놀라고 했을 텐데 전날보다 더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정말로 감사했다. 오후에 공동체 훈련을 가졌다. 총 10팀으로 나누어서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며 함께 게임을 하는 순서였다. 나도 팀을 맡았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웠고, 게다가 우리 팀은 한 게임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남자아이들이 몸싸움을 했다. 말할 수 없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이들이 화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마지막날 순서로 애잔식이 있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원을 만들어 앉았고 앞에 초콜렛 두 개가 놓여졌다. 그리고 연이 연니의 사회로 자신이 미워했던 친구들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 감사했다. 아이들이 먼저 사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아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웠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좀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했다.

만약에 내가 그 곳을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순수한 어린 영혼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게 변화가 있었을까? 답은 확실히 'NO'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싶으셨기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수한 어린 영혼들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지가 스리랑카에서 인사드려요.

원래는 다른 스리랑카 팀원들과 함께 들어오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주셨네요. 간략하게 이곳 상황과 기도제목들 보내드립니다. 함께 중보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는 외선부 형제의 집을 방문하고 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친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불교신앙이 너무 세서 많이 힘들지만 제가 많냐고 손내걸며 참 잘 해 주세요. 그런데 언어가 잘 안 통해서 스리랑카어와 영어를 섞어서 쓰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선교지에서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 스리랑카는 가족주의예요. 우리는 쉬는 날이나 학교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족들과 친해지면 그 사촌들한테 모아서 함께 일하게 해요. 그래서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외선부 형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 한구석서 평생 많이 읽는 스타일인데 여기서도 장례식이 끝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써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집이 불교라 불교 장례식을 하는 방법도 볼 수 있었는데 동네에 하얀 색 깃발을 세우고 집 앞에 하얀색을 하는 띠를 만들어 걸어 놓아요.

지금 이곳은 많이 온감해요. 8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연설하는 곳이 있으면 대모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성악과 인과 타임아웃 사이에 내전이 있어 상황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 해주세요.

이곳 스리랑카에는 저 자신도 많이 알지 못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네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해요.

2001년 7월에 스리랑카에서 헤지가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크리스토폴

가난한 부요함

크리스토폴, 그는 귀족의 아들이었다. 그는 4세기 중엽 안디옥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고, 뛰어난 웅변술로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재물과 명성과 권세가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을 그는 마음껏 향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향락의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향락과 치부가 끝 없이 늘어남에도 마음은 늘 차음과 마찬가지로 갈급하기만 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은 자유함이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돈을 버려했고, 무가치함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자유함을 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 무엇을 얻으려면 얻을수록 언제나 부족한 것이었고 그의 영혼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심령에는 천천히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크리스토폴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안무사에게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배웠다. 어머니의 영향은 그가 성장한 뒤에도 계속되었고 이러한 갈등의 시기에 더욱 힘을 주었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세속적인 모든 이익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포기" 하고야 말았다. 세상에 속한 모든 명성과 쾌락은 자신을 행복하게도 못하고 영혼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깨달아버린 것이었다. 이로부터 그는 자유인의 수련을 시작한다.

그가 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있을 당시 그가 살던 도시는 사치가 극에 달한 곳이었으나 그의 삶은 오히려 검약적이었다. 그는 물질의 추구에 인하여 영혼의 눈이 진리를 떠날까 두려워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영혼의 부요함이라고 참 행복이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설교자로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의 삶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스스로 적은 양의 음식을 지어 먹었고 맨바닥에서 아무렇게나 잤다. 물론 그 자신의 소유는 없었다. 아무 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소유를 남들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참으로 자유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고행을 통해 얻는 자유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하늘이 공급하는 남모르는 자유와 기쁨이 항상 있었다.

그의 집은 이 땅이 아니었다. 그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땅에서의 흥망성쇠는 그의 관심 밖의 일이었다. 흥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이요, 반대로 망하는 일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가며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원리는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힘있는 사람이고 자유인이었다.

(김기훈의 '천국의 기둥'에서)

새가죽을 소개합니다

'임숙빈' 성도를 소개합니다

현재 부천에 살고 있으며 웹디자인으로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오근영 형제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던 날 유난히도 무더웠는데 교회에 들어서자 시원한 냉기가 느껴져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 양오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5교구 한정자 성도(여63세) 혈소판 감소증(피가 마르는 병)으로 순천향 병원 839호에 입원해 있으며, 홀로 병상에 있습니다. 각별한 기도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씨는 더위에 자신의 몸조차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가 우리에게 시원함을 선사하듯 외로운 환우들의 병실을 찾는 발길과 중보 기도하기를 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고백

고 속 윤 (새가족부)



나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니이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좋아했고 종교도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올라만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음양오행설에 따른 사주판자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상처를 줄 때면 기독교에 대해 더욱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 공부를 끝낼 하던 딸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일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자연히 학교 생활과 인생에 회의의 눈졌고, 그러던 중 학교 내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나 성경 읽기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생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니 그 가운데 늘 평안하다고 말하며 나에게도 주님을 믿을 것을 간곡히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못마땅했고 그런 시간에 영어 공부나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며,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관심과 애정이 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도 딸처럼 빨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아직 갖난 아기와 다름없지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다음주일 찬송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전도팀을 이끌던 다니엘 웰스터 휘틀이 작사하였고, 성가대 지휘자였던 제임스 맥그라나한이 작곡한 곡이다.

휘틀의 전도 집회에는 항상 찬송이 넘쳤는데 그 대부분은 휘틀이 그의 설교를 바탕으로 하여 지작한 찬송이었다. 이 곡 역시 그런 종류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 많은 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내용이다.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고

후렴 :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믿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다고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고
4. 주 언제 감람 하실지 흑 밤에 후 다투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다고

이 찬송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여 불러야 한다. 특히 후렴 부분이 높고 올라가는 부분은 그 절정에 달하는데, 불러 재치는 형식이 아니라 가슴 벅찬 감격의 소리에 담아서 안으로 되새기는 기분으로 약간 절제하듯이 음미하면 아름다운 찬송이 될 것이다.

(신앙원위회)

사랑스런 사랑부 찬양대 친구들



박 유 화 (사랑부 찬양대 지휘)

작년 말 경 사랑부 찬양대를 지휘하지 않았냐는 전화를 받았다.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런 제안이었기에 조금 당황했다.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기도해 보겠노와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기도하며 아무리 빠지나갈 뉘를 생각해 봤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인가? 라는 마음만 들 뿐이었다. 결국 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승낙했다.

93년부터 사랑부 교사를 해왔지만 막상 찬양대 지휘를 하려니 여간 난감한 게 아니었다. 처음 한 달간은 찬양대 친구들의 이름을 외우고 특성을 익히며 서로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내가 어려움을 느꼈던 만큼 낯선 지휘와 찬양을 하는 그들 역시 힘들었을 법도 한데 예배시간마다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에게 서로에게 어색했던 첫 만남과는 달리 그들은 이제 내 눈빛만 보기도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차리고는 잘 따라 준다. 잘 따라 자식을 바라보는 양 그런 모습이 여간 대견스럽지 않다.

예배시간마다 이렇게 익힌 찬송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휘하는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는다. 어눌한 발음에 때로는 가사를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제멋에 거의 하나님은 있고 자신만 남은 찬양을 드리지는 않는다. 그렇게 맑은 그대들의 영혼을 접한 뒷날이? 지휘를 하면서도 가슴으로부터 밀려오는 감격에 눈물이 흘려져 나오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하게 된다.

동기를 즐거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오히려 그들 속에서 내가 얻고 있는 것이 큼니다"라고 말한다? 한다. 특별히 누구를 둔 기적이 없었지만 나 역시 같은 마음이다. 내가 사랑부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상으로 그들이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들이 품고 있는 온기와 순수가 이미 세상과 부대끼며 식어버린 내 영혼을 대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나약함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없이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을 찾을 때 인정하고 위로하시는 것처럼 나 역시 그들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려 한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사랑은 아주 단순한 논리라 생각된다. 그저 주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리라고는 나는 이유 있는 사랑, 경건하는 사랑에 익숙해 있었던 듯 하다. 어느새 결독목사가 되어버렸다는 내 매주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배운다.

진리의 생

‘예레미야 애가(Lamentatio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그리고 ‘애가’를 읽으면서 주의 심의 감성을 느끼고, 죄에서 떠날 것을 바라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애가’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심의 감성을 알고 각성한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영적인 면을 생각해보면 우리들 역시 다 거기에 하나님을 떠난 연약한(weak) 자들이었고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인 자들이었습니다(롬 5:6,8,10). 다시 말씀드리자면 ‘애가’에 묘사된 심판과 고통은 나를 포함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기억하며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유대인이자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그분과 새롭게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심로의 각성을 명심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극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詩)라는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詩는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며, 예레미야는 심판과 멸망의 극심함을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애가’를 읽을 때에는 논리적으로 논술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감성(感性)을 사용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의 시가서(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등) 모두 그렇게 읽어야 하지만, ‘애가’만 감성을 요구하는 성경도 없습니다. ‘애가’는 진실로 거짓없이 민족을 사형했던 한 신자라. 민족의 죄를 가슴 아파했고, 듣지 않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슬퍼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민족의 황폐함을 두 눈으로 바라보았던 외로운 신자이자 고통스런가 토해내는 슬픔과 간절한 소망의 노래이므로 가슴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애어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시를 읽듯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그가 하나님의 슬픔을 전달하고 소망을 바라들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앉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음모와 타락의 도시 예루살렘을 보고 ‘애가’를 부르시던 예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 좋겠습니다.

(김동현 목사·출판권 지도)

에바다부 수련회를 마치고

이마리아 (에바다부 보조교사, 대학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갈까말까 많이 망설였던 에바다부 수련회. 하지만 이번 수련회가 나에게 감사와 섬김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에바다부 수련회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섬기는 삶, 나누는 삶’이라는 주제로 바인기 목사님과 유성철 전도사님을 모시고 충현기도원에서 있었다.

수련회 첫째날 저녁 집회 후 기도제목을 들을 때 일이 생각났다. 비록 듣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지 모른다는 농아인 선생님의 말씀이 왜 이리 내 마음을 울리는지...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는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러웠다. 솔직히 그분들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또 그런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여러 부서 수련회에 참석해 보았지만 그 어떤 부서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나 역시도 잘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에바다부 수련회에서는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정돈하는 그분들의 모습이었다. 특히 부흥회가 끝나고 간식 먹는 자리를 늦게까지 남아서 기름절로 말끔히 닦던 학생부 아이들과 제자반 친구들의 모습은 나에게 섬김의 자세를 일깨워 주었다. 그분들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고 또 섬기는 마리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일본 농아인, 충현교회의 방문

에바다부 주교회 지난 11월(토요일)부터 14일(화)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21명(농아인 18명, 통역 3명)의 일본 농아인들이 충현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7월과 2001년 1월 두 차례의 충현교회 일본 농아인 단기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초신자들과 교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및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한국의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일본 오사카 지역의 농아인들이다.

이번 일본 농아인 방문은 국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신앙공동체의 사결과 충현교회가 일본에 소개되어 양호 단기선교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본 안에서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버리는 지혜

인문 시가기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는 감동을 붙잡는다.

7월의 무더운 여름 어느날, 난 내 방을 대청소했다.

전에 살던 집보다 공간이 좁아서인지 내 방은 짐들로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마침 청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이다.

갖가지 방법으로 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해서 숨기기도하고 버리기도 했지만 내 물만 맘으로 범범이 될 뿐 정리는 도통 되지 않았다. 그렇게 치치었음에 또 천하게 지내는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언니! 지금 방을 정리하는데 아무리 정리를 해도 깨끗해 지지가 않아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언니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

“성연! 아무리 짐을 여러 방법으로 정리하고 숨겨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된단다. 실제로 필요없는 물건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어떨겠지?”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버렸는데 또 버리라고? 이젠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어. 다 쓰는 물건이란 말이야 언니는 내 생활은 생각도 안 하고...”

내심 언니를 원망하며 저까지 애쓰며 다시 정리를 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달라진 짐을 보며 혼자 웃으며 했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다. 아주 행복하게...

그런데 행복한 날은 계속 되지 않았다. 정말 언니의 말처럼 내 방은 애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던 것이다.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애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방을 보며 현재의 내 모습을 본다.

어릴 적 막연하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새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 옛 자취를 버리기를 원했고, 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오늘날 나의 최면 성품들이 자꾸만 자꾸만 나와 나를 괴롭혀 한다. 나는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잠깐 모자르잖는 곳에 숨겨두었던 모양이다.

“버리는 지혜”

이제는 언니의 조언에 따라야겠다.

(양성연)

